

KRIVET Issue Brief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2년 6월 30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제6호 2012. 6. 30

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정착 과정과 전공·성별 차이

- 4년제 대학 졸업자(2002년)의 생애 초기 직업경력(7년 3개월)을 보니 43.4%만이 '주요 일자리(3년 이상 근속한 직장)'를 잡는 데 성공함.
-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이 높은 전공일수록 주요 일자리를 취득할 확률이 더 높음. 공학계, 의약계의 순
- 대졸 청년층 직장 이동자의 약 36%가 이직 시 산업과 직업이 모두 바뀌는 '경력 변동'을 경험했으며, 이학·공학계와 인문·사회계에서 이 비율이 높음.
- 여자는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이 남자보다 낮으며, 주요 일자리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공이라 하더라도 남자보다 그 비율이 크게 낮음.

01

'주요 일자리'와 '경력 변동'의 정의

| '주요 일자리(career job)'의 정의

- 대학 졸업(2002년 2월) 후 현재(2009년 6월)까지 7년 3개월 동안 개인이 경험한 모든 직장 중에서 '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일자리'로 정의함.
 - 근속 3년의 근거: 분석 표본의 평균 근속기간(2.93년), 졸업 후 직업경력년수가 약 3년 10개월인 점, 상식적으로 졸업 후 7년 3개월 동안 경험한 여러 직장 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직장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다면 노동시장에 비교적 잘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| '경력 변동'의 정의

- 2개 이상의 직장을 경험한 경우 중에서 첫 직장과 마지막 직장의 산업과 직업 모두가 바뀐 경우임. 이때 산업은 대분류(9개) 수준, 직업은 대분류를 6개로 재분류한 것을 사용했음.

02

분석자료

| 분석자료

-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 졸업생 표본(36,125명)을 한국고용정보원의 '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업력 DB'와 연결(이하 '연결자료'). 고용보험상에 나타난 직업이력(job history)에서 직업, 직장, 근속기간 정보를 이용함. 이 표본은 전국 25개 대학교(교대 3개, 국공립대 40%, 서울·경기지역 소재 대학 32%)의 졸업생임.
- 고용보험 직업력 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: 사범계와 예체능계 전공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과소측정될 수 있음¹⁾.

| 각주

1) 사범계와 예체능계 졸업생은 학교 교사이거나 자영업자가 많은데, 이들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업성고가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.

03

주요 일자리 취득

첫 직장과 주요 일자리 취득

- 분석대상의 43.4%가 주요 일자리를 잡았으며, 이들 중 63.4%(9,930명)는 첫 직장에서 주요 일자리를 잡음. 즉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바로 주요 일자리를 잡은 사람은 전체 표본 대비 27.5%임.
 - 조사 대상 청년층 대학 졸업생의 약 1/4만이 첫 직장에서 주요 일자리에 안착하며 대부분은 2회 이상의 직장 탐색을 통해 노동시장에 정착하게 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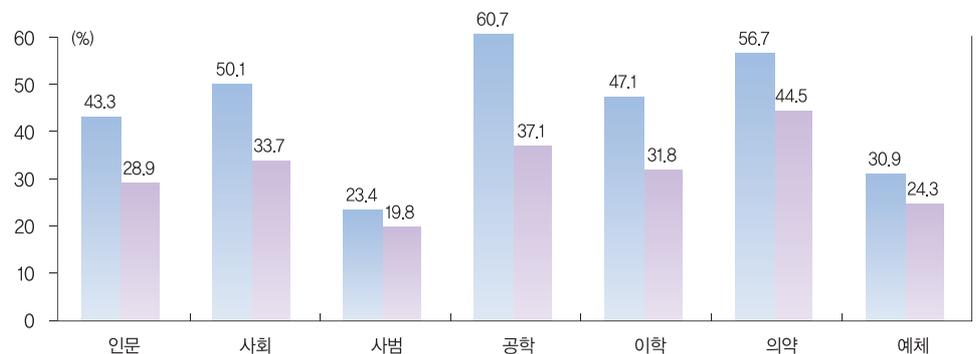
[그림 1] 직업경력의 구분: 첫 직장과 주요 일자리

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

- 전공별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은 공학계(56.6%), 의약계(49.6%), 사회계(42.4%), 이학계(38.6%), 인문계(33.0%), 예체능계(26.4%), 사범계(20.9%)의 순임.
 - 전공분야가 직업세계와의 연계성이 높고, 직업특수적인 기술과 숙련을 교육하는 전공일수록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이 높음²⁾.
- 성별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을 보면 남자는 53.1%이나 여자는 31.6%에 불과
 - 전공별 여성 내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은 의약계(44.5%), 공학계(37.1%), 사회계(33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, 동일 전공의 남자(56.7%, 60.7%, 50.1%)에 비해 모두 낮음.
 - 대학 졸업 후 직업경력 축적의 초기 단계에서 여자 졸업자는 동일한 전공의 남자에 비해 더 어렵게 정착

각주

2) 직업세계와 연관성이 높은 사범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앞서 제시한 각주 1)과 관련된 것으로 사범계 졸업생의 경우 학교 교사가 많은데, 학교 교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이 아니어서 이들의 직업력이 집계 되지 않았기 때문임.



[그림 2]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: 전공·성별

| 주요 일자리 취득까지의 소요 기간

- 주요 일자리 취득까지 평균 1.7년(약 21개월)이 소요됨. 단 첫 직장과 주요 일자리가 동일한 경우는 1.3년(15개월), 다른 경우는 2.5년(30개월)이 소요됨.
 - 주요 일자리가 있는 사람(15,662명)만을 대상으로 측정
 - 전공별로는 의약계가 가장 빨리 주요 일자리를 잡음.
 - 여자(1.7년)가 남자(1.8년)보다 주요 일자리를 약간 더 빨리 잡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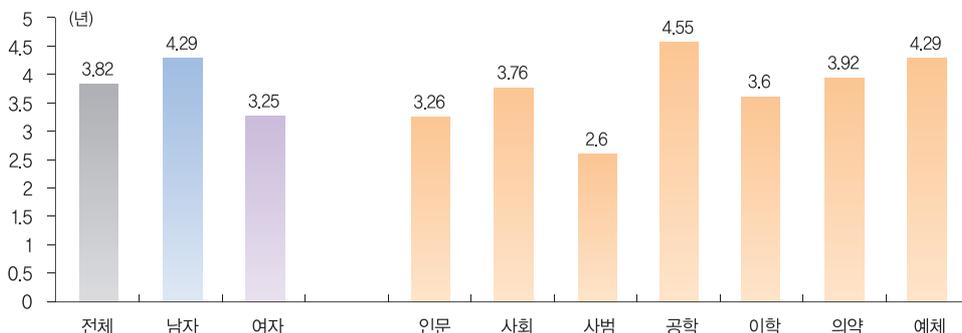
[그림 3] 주요 일자리 취득까지의 소요 기간

04

직업경력과 경력 변동

| 초기 직업경력의 축적 상황

- 졸업 후 7년 3개월 동안 축적한 '총 직업경력년수'는 평균 3.82년(3년 10개월)임. 총 경력년수가 5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7.3%
 - 대학 졸업생의 일부만이 안정적으로 직업경력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전공별 직업경력년수는 공학계(4.55년), 예체능계(4.29년), 의약계(3.92년), 사회계(3.76년) 순임 ([그림 4]).
- 성별 직업경력년수는 남자(4.29년)가 여자(3.25년)보다 약 1년 더 길고, 5년 이상 직업경력을 축적하고 있는 비율도 남자는 45.7%인데 여자는 27.0%에 불과
 - 노동시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직업경력 축적에 있어 여자는 남자보다 열위에 있음.



[그림 4] 생애 초기 직업경력 축적: 대학 졸업 후 7년 3개월 경과 시점

| 각주 |

3) 이병희·김주섭 외(2005). 『교육과 노동시장 연구』, 한국노동연구원. 김안국(2005). 「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」, 『노동경제논집』, 제28권, 39~76쪽

| 산업과 직업이 모두 바뀌는 경력 변동 상황

- 직장 이동자의 36.1%가 이직 시 산업과 직업이 모두 바뀌는 경력 변동을 경험했음. 졸업 후 약 4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한 선행연구(경력 변동률: 30%)보다 높음³⁾.
- 직업지향적 전공분야인 의약계(12.2%)와 사범계(26.2%)는 경력 변동률이 낮음.
 - 직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전공일수록 직업 탐색 과정에서 직종이나 업종의 변동이 적음. 즉 직업지향적 전공일수록 직업 탐색의 범위를 쉽게 좁힐 수 있어서 주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, 또한 직업보다는 일자리(고용조건)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음을 시사
 - 이에 비해, 이공계와 인문·사회계 대학 졸업생의 상당수는 생애직업경력 초기의 직장 탐색 과정에서 극심한 경력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줌.
- 학교와 전공, 그리고 인적 속성에 있어 개인별 차이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, 직장 이동시 경력 변동을 수반할수록 주요 일자리 취득 확률이 낮았음.



[그림 5] 직장 이동자 중 경력 변동을 경험한 비율

05
시사점

| 대학 졸업 후 7년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졸업생의 43.4%만이 근속 3년의 주요 일자리에 정착

- 분석 대상 졸업생의 27.5%만이 첫 직장에서 주요 일자리를 잡음.
- 즉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초기 직장 이동과 다양한 직업 탐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. 졸업생의 약 57%가 취업 이후 직장 이동과 탐색을 하고 있음.

| 대학의 전공 선택에 있어 생애직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선택이 이뤄지도록 진로지도를 개선할 필요

- 직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전공일수록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주요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대학 졸업 후 직업경력의 초기에 있는 청년층이 여러 직업을 탐색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, 직장 이동 시 경력 변동을 수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임.

| 생애 초기직업경력 축적 과정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개선할 필요

- 여자는 총 직업경력년수에서 남자보다 1년 적고,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도 31.6%(남자 53.1%)에 불과함. 주요 일자리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공(의약계, 공학계, 사회계)이라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그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노동시장 진입 후 초기 직업경력 형성 단계에서의 남녀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될 필요

김미란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